

2020
그린커넥터 4기

너와 나의 이야기





Contents

Chapter1. 아동 맞춤형 활동 그린커넥터	03
Chapter2. 케미 넘치는 우리의 6개월	07
Chapter3. 아동들의 든든한 조력자	17
Chapter4. 우리의 에피소드	23
- 첫번째 Story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 두번째 Story	
"제가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Chapter 1 아동 맞춤형 활동 그린커넥터

그린커넥터란?

1. 목적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지속적인 정서 지원 및 욕구파악을 위한 아동권리기반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의 건강한 힘을 찾도록 돕습니다.

아동권리기반 사례관리의 핵심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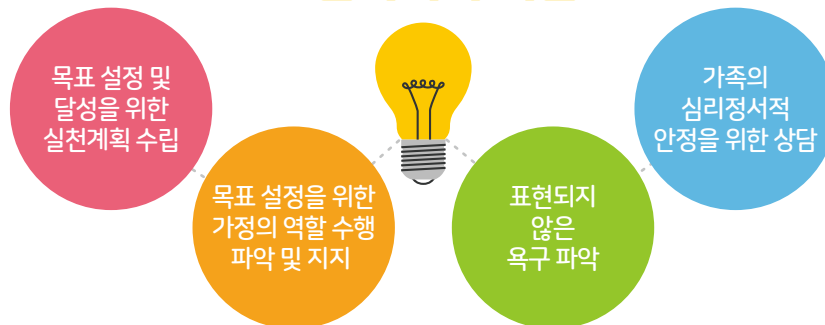
아동중심	책무성	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발달	참여	아동 친화적 환경	파트너십

2. 목표

- 1) 정기적이고 빈도 높은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파악·대처합니다.
- 2) 아동의 꿈과 목적을 찾고 성취시키며,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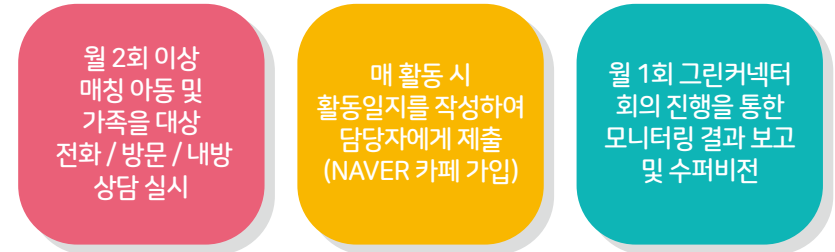
3. 역할

그린커넥터 역할



4. 사업내용

1) 활동과정



2) 활동과제

월별 활동 과제



Chapter 2

**케미 넘치는
우리의 6개월**

2020.06.04. 그린커넥터 발대식 및 활동교육



그린커넥터 4기



활동시 방역키트

활동에 대한 책임감 등을 기준으로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10명의 그린커넥터와 함께 하는 발대식 및 활동교육! 아이들을 만나기 전 기대감과 활동시작 전 자원봉사 및 사례관리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활동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활동 시작 시기가 연기되었지만 방역키트를 제공, 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2020.06 ~ 2020.11 아동과 그린커넥터가 함께 하는 활동



아동들의 욕구를 반영한 활동 목표를 기반으로 월 2회 이상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린 커넥터 와의 외부 활동 및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지지를 받고 스스로 강해 질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06 ~ 2020.11 그린커넥터 정기사례회의

아동들과 만나 활동한 뒤 제출하는
활동일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월 1회 정기사례회의!
그린커넥터가 요청한 슈퍼비전에 대해 담당자뿐만 아니라,
그린커넥터 서로가 각자의 경험들로 답을 전합니다.

아동권리기반의 활동 수행을 위해 어떤 활동과 방식으로
아동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을지 고민해봅니다.

6월 정기사례회의



7월 정기사례회의



2020.10.31./2020.11.08. 그린커넥터 문화체험활동

아이들의 욕구 조사 및 내가 꾸미는 DIY 여행

코로나 19로 인해 달라진 일상에
답답함을 느끼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일상은 무엇이 있나요?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 못하고, 마스크를 꼭 끼고 밖에 나가
활동을 해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은 가기 무서워요.
소독을 자주, 많이 해야 해요.

달라진 일상 중 가장 답답한 것은 무엇인가요?

마스크를 꼭 끼고 밖에서 활동 해야 하는 것이요.



그린커넥터 선생님과 함께 가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경거리가 많고
아기자기한 것이 많은 곳에 가고 싶어요.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많은 곳이 좋아요.

그린커넥터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얻고 싶나요?

자신감 그리고 즐거움, 선생님과의 친밀감이요



아이들은 어떤 여행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내가 꾸미는 DIY 여행

Do It Yourself

Q. 어떤 것을 함께 정하면 좋을까요? EX) 장소, 체험, 음식

- 체험 (박물관, 미술, 동물 관련 된 여러가지 체험)
- 장소 (예쁜 볼거리가 많고 책들이 많고 읽을 수 있는?)
- 음식 (장에 많이 자극이 되지 않는 음식)

Q. 계획을 짜기 전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EX) 코로나, 테마, 안전
- 흥미 (재미있는곳!)



2020.10.31. 그린커넥터 문화체험 활동(초등부)

아동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떠난 경주 문화체험 활동!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초등부·중등부로 나누어 도자기체험, 경주월드 등 그린커넥터 선생님들과 즐거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동들이 직접 꾸민 활동, 어땠는지 사진으로 한 번 돌아볼까요?



2020.11.08. 그린커넥터 문화체험 활동(중등부)



처음으로 선생님들과 다른 지역으로 떠난 여행! 어땠나요?



놀이기구 탄거랑 선생님이랑 사진 많이 찍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올 거예요.

그린커넥터 선생님들이랑 모두 같이 놀이기구 탈수 있었던
놀이공원이 제일 좋았어요! 이런 좋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자기 만들기라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처음 보는 선생님들도 좋았고, 박물관같은 곳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완전 좋았어요!

코로나 19로 인해 답답한 일상 속,
그린커넥터 선생님들과 떠난
경주여행은 만족도 최상!

작성 일자	활동시간
작성 장소	경주시립박물관
작성 인원	학생 10명, 교사 2명
작성 내용	경주시립박물관 견학 및 도자기 만들기
작성 결과	대부분 학생이 박물관 견학 및 도자기 만들기 활동을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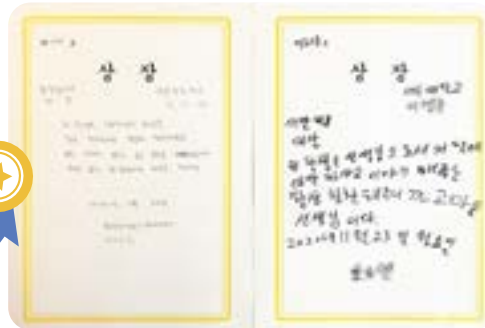
실제 작성된 아동 후기

2020년 11월

코로나 19로 인해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어 많은 아쉬움이 남은 그린커넥터 활동.
나의 말을 잘 들어주었던 그린커넥터 선생님들과 마지막 추억을 나눕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담긴 케이크와
주고 받은 편지



서로에게 주는 상장



우리의 활동을
추억하는
포토북 만들기

Chapter 3 아동들의 든든한 조력자

2020년 소감 및 인상 깊은 순간



평소 저는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지 않고 잘 공감하지 못하는 편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린커넥터 활동을 하면서 아동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이해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던 순간'

아동이 본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었을 때가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초기에는 속마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함께 운동하고 여가생활을 하면서 서로간의 유대관계가 끈끈해지면서 점점 변해갔습니다.

이모부와의 관계단절로 많이 힘들어 하였는데, 먼저 고민이라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아동에게 충분한 믿음을 주었고 관계를 잘 이어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상원 그린커넥터 -

사회복지 실습과 후후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사례관리를 미리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늘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상담 기술을 적용해 보면서 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활동일지와 케이스컨퍼런스 자료의 피드백을 받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작성 능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담당 선생님께서 제가 부족한 부분과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어떤 점이 부족 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할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주던 순간'

아동과 총 3개의 영상을 보았는데, 노래 'Butterfly'를 듣고, 아동이 "꿈이 없는 사람도, 뭐든지 다 괜찮으니 해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동을 위해 열심히 많은 것을 탐색하고, 고르고 제작한 시간 동안 힘들었던 것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뽀이랑은 친구들이랑 하지 못하는 사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할 때 마다 '그래도 내가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구수민 그린커넥터 -



1대 1로 활동을 진행하며 아동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깊게 파악하기 위해 고민해 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또한 정기사례회의를 통해서 다른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린커넥터 4기와 좋은 인연을 맺고 항상 도움이 되는 조연과 함께 활동을 이끌어준 좋은 슈퍼바이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함께한 활동을 소중한 추억으로 남긴 순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 후 오랜만에 만난 아동과 새로운 장소에서 그간의 일상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아동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아동의 개인 휴대폰을 산 후 첫 활동인데, 활동을 마친 뒤 아동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 배경화면이 다 그 날의 활동사진으로 바뀌어 더욱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 정서진 그린커넥터 -

평소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기에 아동을 만나서 여러 활동을 해보는 자체가 저에게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한 아동과 1:1로 만나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흔하게 경험할 수 없는 기회이기에 열심히 활동에 임하였으며 성실성과 책임감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린커넥터 활동이 아동에게 정서적 지지를 주는 것이지만, 아동에 의해 저 또한 정서적으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아동의 순수한 생각과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행동들에서 얻는 에너지가 저에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동이 제일 좋아하는 활동을 공유한 순간'

아동이 제일 원했던 스크린 야구장을 간 날, 4번째 활동이라 아직 완전한 라포 형성이 되기 전 상태였기에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며 아동과 야구로 대결을 하고, 야구를 못하는 저에게 아동이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매우 친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 송민정 그린커넥터 -



지속적인 심리적 지지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삶을 찾게 도와준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동이 저에게 “활동 끝나고 꼭 연락하고 지내요”라고 할 때 내가 잘 활동을 해 왔구나라는 생각에 감동스러웠습니다. 아동과의 정기적인 만남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일상 속 답답함 해소를 위해 떠난 순간'

아동이 학교 끝나고 피곤한 건 아닌지, 너무 늦은 시간은 아닌지 등 많은 걱정을 했지만, 어머니의 동의하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이 좋아하는 야경을 보며 누워서 서로에게 궁금한 점에 관해 대화하던 순간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활동마다 찍은 사진을 꼭 보내 달라며 자랑하고 싶다는 아동의 표현에 흐뭇하였으며, 공연무대를 보며 엄청나게 좋아하는 모습에 감동을 얻기도 했습니다.

- 김민경 그린커넥터 -



첫 대외활동이라 미숙한 부분도 많았겠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 제 자신의 필요성과 자존감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동과 1대 1로 활동이 진행되면서 더 깊게 관계를 이어나가며 아동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이 느껴져서 뿌듯하였으며, 다른 그린커넥터와 인연을 쌓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를 처음 만난 순간'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동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하며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어서 긴장도 있었지만 금세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들을 수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활동이 진행될수록 아동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궁금한 것을 물으며 친밀감이 쌓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 김나윤 그린커넥터 -

제가 했던 봉사는 지금까지의 단기적인 것이 많았기에, 깊이 있는 라포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린커넥터 활동을 통해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천천히 아동을 알아가고, 지속적으로 일상 대화를 나눔으로써 친밀감이 생긴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활동에 비해 시간이 비교적 길었던 만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를 통해 스스로 헤쳐 나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관리'를 미리 접하고, 한 가지의 특정 상황에 대해서 그린커넥터 선생님들의 각기 다른 입장을 들을 수 있어, 사고의 폭이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동이 먼저 손 내밀어 주던 순간'

'다이어리 꾸미기'활동 당시, 다이어리와 스티커로 "원하는 대로 꾸며 보자!"라고 말하자 아동이 "선생님은 안 해요?"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하여 "응, 선생님 거는 없는데 ~?"라고 하자, 본인의 다이어리 한 장을 뜯어 주며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제가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고 권유하는 모습을 보며 아동이 저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 문남주 그린커넥터 -

사회복지와 관련이 없는 학과를 다니며 라포 형성을 경험해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6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동은 흥미가 없어도 하자고 하면 수동적으로 하는 성격이라 제가 직접 이야기를 이끌어 가야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친밀감이 아직 쌓이지 않았기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 표현해주던 순간'

아동이 낮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먼저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라포를 형성해갔습니다. 같은 질문에 과거에는 "어떻게는 잘 살겠죠."라는 대답이 현재는 "요리 공부를 하고 싶어요"라고 변하며 확실한 방향성을 가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 앞 공원 산책을 하며 솔직한 대화를 주고 받았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 손동원 그린커넥터 -



아동과 긴 시간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아동의 권리옹호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례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활동일지 등 자료작성을 해보며 저 스스로의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아동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어 나갔던 순간'

정해진 틀이 아닌 아동의 방법과 스타일로 활동을 꾸며 나갔던 활동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생크림 제조 과정'에서 아동이 제안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면서 아동이 활동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활동이었습니다.

- 이하영 그린커넥터 -



그린커넥터 활동을 하면서 아동이 저를 믿어주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다음 활동을 더욱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아동이 실제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례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오면서도 매 활동이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활동 때마다 제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 의구심이 든 적도 있지만 아동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필요한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동이 변화하는 모습을 느꼈던 순간'

아동이 타인의 시선에 불안감을 느끼고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벗어났을 때 소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린커넥터 활동에서는 아동의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아동의 말에 공감하며 지지체계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동도 매 활동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고 최근 활동에서는 평소보다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부 활동에서도 말하는 목소리도 크고 밝고 또렷하게 얘기하였으며,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이영주 그린커넥터 -

Chapter 4

우리의 에피소드

